

베트남중앙은행, 나이스평가정보 베트남법인 신용정보서비스제공 허가

- '26.4월 한·베 정상회담 성과사업 -

베트남중앙은행(SBV; State Bank of Vietnam)은 5월 20일(수) 나이스평가정보 베트남현지법인(NICE CI; NICE Credit Information)에 대해 신용정보서비스제공 허가증(Certificate)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NICE CI는 베트남 신용정보서비스시장에 네 번째 신용정보회사*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다.

* 베트남 신용정보회사(허가시기): PCB('13.7월), FCBV('24.12월), KCI('24.12월), NICE CI('26.5월)

베트남에게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1위, 방문 관광객 2위, 상호교역 3위에 달하는 국가이며, 금융부문에서도 베트남(해외점포 54개, '26.5월)은 우리나라 금융회사가 미국(6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진출한 핵심 거점국가이다. 최근 산업은행 하노이지점('26.1월), 기업은행 베트남법인('26.4월)에 이어 이번 NICE CI('26.5월)에 이르기까지 최근 우리 금융회사들은 업권을 다변화하며 베트남 금융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 베트남 외국계 은행(10개): 한국 3, 말레이시아 3, 영국·홍콩·싱가포르·호주 각 1
베트남 외은지점(49개): 대만 11, 한국 8, 일본·중국 6, 태국 4, 미국·프랑스 3 등

이번 NICE CI 허가는 신청서를 제출('25.7월)한 지 10개월 만에 매우 신속하게 완료된 건으로, 이는 최근 한·베 정상회담(4.22일)에서 논의된 의제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이다. 정상외교로 조성된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이덕원 금융위원장과 베트남중앙은행 팜 득 안(Pham Duc An) 총재 간의 고위급 회담(4.24일), 민간회사의 노력, 재외공관의 지속적 현지소통 등 공동의 노력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시너지를 창출하였다.

※ "금융위원장, 적극적 금융외교로 인도·베트남과 금융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다" ('26.4.26일)

NICE CI는 베트남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 고도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용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베트남 금융권의 주요 현안인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경보(EWS)·사기방지(FDS) 등 고도화된 서비스와 신뢰 기반의 신용정보 인프라를 통해 베트남 금융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NICE CI는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지원 등 베트남 국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NICE CI는 전문인력 채용, 전산·보안설비 구축,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및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 내부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진출수요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외교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K-금융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윤희 (02-2100-2880)
	글로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혜수 (02-2100-2891)
공동	주베트남한국대사관	책임자	공사참사관 이재면 (+84-76-607-3069)
	주호치민총영사관	책임자	금융영사 최상아 (+84-96-370-2670)
	나이스평가정보 사업기획단	책임자	상 무 유승오 (02-3771-1032)
		담당자	매니저 구철문 (02-2122-4668)

